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5월 10일(금)

(음력 4월 6일)

Пятница

10 мая 2019г.

№ 18(11683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9일은 대조국전쟁 전승일이다.
<영예>광장에서 <불멸의 연대>.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5월 9일은 승리의 날

친애하는 원
로 여러분과 주
민 여러분!

위대한 승리
의 날을 진심으
로 축하드립니다!
이 명절은 우리
국민에게는
신성한 명절입니
다. 술한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언제나 소련군과
노동전선 참여자들의 업적을 기억하며
적과의 전투에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고
국가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내며 우리의
영토에 평화를 돌려준 모든 분들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전쟁시절에 용맹스러움과 영웅심을
떨치고 러시아와 사할린주의 발전에 기
여하신 친애하는 참전용사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범은 우
리에게 힘을 북돋우며 삶의 어려움을 극
복하고 새로운 성과에 이르도록 독려합
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시고 주
변의 배려와 관심 속에 살도록 하는 것
이 우리에게 중요함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사할린과 쿠릴열도
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여
건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공로
에 몇 배를 더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가
겠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강건함과 평
화와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뜻깊은 명절, 전승일을 진심으로 축
하드립니다!



사할린주지사 권한 대행
알레리 리마렌코

크라스노고르스크 화재 이재민을 위한 지원 조치

최근 크라스노고르스크 화재로 인해 34명이 재난을 당했다.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 정보에 따르면 5월 6일부터 이재민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들에게 생필품 지원을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재를 입은 주택은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로 진단됐다. 주지사는 이재민들에게 임시 주택을 제공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재민 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 일시불로 지방자치체에 산에서 4만 루블리, 주예산에서 1만 루블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는 5만 루블리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주정부 알렉세이 벨리크 수상 권한 대행의 크라스노고르스크방문 결과는 각 화재 피해자에게 사할린주 사회보호부에서 30만 루블리를 지급하기로 했다.

토마리구역에서는 이재민들을 위한 상담소를 열어 상담을 진행하는 중이다. 크라스노고르스크에서는 20가구가 사는 8동의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이재민들은 친척들의 집에서 거거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이재민을 수용할 임시 주택을 찾는 중이며 모두에게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제 2회 <사할린주 팀> 인재 선발대회 개최 예정

사할린주는 알레리 리마렌코 지사의 제안에 따라 올해 가을에 새 인재발굴 경연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2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된 제1회 인재 선발대회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되어 1300명이 <사할린주 팀> 경연에 참가해 55명이 선발되고 최고 성적을 거둔 22명은 이미 취직이 되었다.

"사할린 및 쿠릴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더 편리하게 만들수 있는 아이디어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이번 경연 덕분에 알게 됐다. 우리가 사할린주의 거대한 기회를 세우고 그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때문에 제 2차 <사할린주 팀>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언급했다.

경연에서 우승자 10명에게는 교육 보조금 100만 루블리씩, 2명에게는 본인이 작성한 사회적 기획을 실행할 장려금을 받았고 제1회 콩쿠르 우승자들은 지역 및 지자체 정부기관들에 지도자로 취직될 기회를 갖는다.

한 예로 막심 조골레브 우승자는 사할린주 운수 및 도로 경리부 부장관 대리, 예고르 움노브는 사할린주 청년청 지도자 권한 대행으로 임명됐다.

사할린주 정부 세르게이 나우모브 부지사는 "우리는 제2회 콩쿨에서도 필요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지역당국과 기업의 지도자들이 협력하도록 그들을 초청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인재 발굴 경연의 기본사항은 변경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사할린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단신

사할린주, <아시아 아이들> 스포츠 시설 수상

사할린주는 2018년도의 제1회 <아시아 아이들>국제동계스포츠대회의 결과로 <올해의 스포츠 경기>부문에서 <스포츠 시설>상을 받았다.

"동계스포츠경기 종료 후 우리는 기쁜 상을 받았다. 우리의 스포츠 시설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라고 사할린주 스포츠·관광 및 청소년 정책부 세르게이 부렌코브 장관이 말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제2회 <아시아 아이들>국제동계스포츠대회도 사할린주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2020년도 올림픽경기에 참가할 국내 스포츠맨들에게 사할린은 더없이 훌륭한 훈련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대의 기억> 경주

사할린자동차클럽 회원들이 전승절 전야에 <세대의 기억> 첫 경주에 10명의 참전용사와 원로들을 만나 축하인사를 전했다. 첫 경주의 참가자들은 홈스크, 코르사코브, 아나와, 네웰스크, 타라나이, 소콜, 비코브, 포로나이스크에 거주하는 참전 원로들을 방문하고 클럽 회원들은 우선 중앙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원로들도 방문했다. 원로들은 "우리 늙은이들이 젊은 세대를 꾸지람만 했는데 이제는 다른 눈으로 봐야 하겠다."라며 무척 기뻐했다. 자동차클럽 회원들은 93세-100세 노인 10명을 찾아 방문하여 식품을 선사했다. 노인들은 식품도 고맙지만 젊은이들의 기특한 마음이 더 기쁘고 반갑다고 했다.

키도(KYDO)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할린 방문

한국마사회 (회장 김낙순) 렛츠런재단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농어촌희망청소년오케스트라(KYDO)와 함께 5월 9일(목) 사할린을 방문해 5박6일 일정을 가진다.

키도(KYDO)는 사할린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교류 연주 5주년을 맞아 공연을 펼치는데 첫 번째 공연은 5월 12일(일) 코르사코브시 '오케안'문화회관에서 열리고 13일(월) 18시 30분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안톤 체호브극장에서 두 번째 공연이 진행된다.

<서울굿> 사할린에 온다

오는 5월 18일 한국 서울 사머니즘 박물관(관장 양종승) 대표단(15명)이 사할린을 방문해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할린 새고려신문 70주년 기념 사할린 한인 위령제를 갖는다.

사할린주한인협회의 <전통에서 생의 기를 찾으며>기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위령제는 한국전통 서울굿 축제의 한마당으로 19일(토) 16시 우글레고르스크에서, 20일(월) 18시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 입장은 무료다.

행사는 새고려신문사·사머니즘박물관·사할린주한인협회 주최·주관한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3월 말 김포시에서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10주년을 기념해 김포 아트빌리지 아트센터 전시실에서 <또 다른 섬 사할린, 풍경과 얼굴>전시회를 열었다.

김포문화재단이 기획한 이 전시회에 사할린의 대표적인 화가인 주명수(70세) 화가와 조성용(59세) 화가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사할린에서 유명 화백으로 인정받은 이들은 전시에 초청되어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김포에서 공식적인 일정을 가졌다.

이 전시회에는 주명수 화백과 조성용 화백의 작품 총 50여 점이 소개되었다. 두 작가는 이번 방문 일정과 한국 측에서 전시회를 대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 매우 만족감을 표했다.

주명수 화백은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성대한 대접을 받았다며 만족감을 금치 못했다. 김포문화재단으로부터 따뜻한 영접과 김포 화가들과의 유쾌한 만남으로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표명했다.

주명수 화백의 이번 전시회는 <섬을 떠나며> 한 많은 영주 귀국자들의 모습이 담긴 그림을

'또 다른 섬 사할린, 풍경과 얼굴' 주명수 · 조성용 사할린 화가 전시회 김포에서 개최



소개하고 이산과의 아픔이 잘 반영된 작품들을 출품했다.

주 화백에 따르면 작년에 사할린주미술박물관에서 열린 그의 전시회에 김포문화재단 대표단이 우연히 방문하면서 이번 김포 전시 기획에 참가 초대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주명

수 화가는 추상적 화가로 잘 알려져 있고 조성용 화백은 좀 더 현실적이고 사실적 표현의 예술인으로서 초상화 화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이번 전시회에서 주로 유화풍 풍경화를 많이 소개했다. 이번 그의 한국 방문은 4번째이다. 각 방문마다 느낌이 달랐다면 밝은 색채와 아름다운 추구하는

봄 한국을 볼 수 있어서 이번에도 역시 감회가 새로웠다고 한다. 전시장인 아트센터의 전시 수준을 높이 평가하며 김포문화재단 측에서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10주년 행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한 한국 언론매체는 다음과

게재했다.

‘주명수 작가는 1948년 러시아 사할린 주 코스사코프시에서 출생, 사할린에서 미술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로, 스케치와 수채화로 변방의 소외된 민족의 얼굴을 그리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국인 남한을 비롯, 사할린 창작그룹 일원으로 북한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들의 생활상과 귀한의 문제의식을 담은 작품 ‘섬을 떠나며’ 연작작품이 전시된다.

사할린 예술전문대학 예술학부 교수이자 사할린의 주요 화가로 활동하는 조성용 작가는 초상화와 정물화를 비롯, 사할린 섬 구석구석을 직접 답사하고 그리는 풍경화에 몰두하고 있다. 풍부한 색채로 공간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분위기를 세밀하면서 대담하게 표현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차갑고 단조로운 것 같은 북방의 섬 사할린의 사계와 아름다운 자연의 풍

경을 선보이며 우리의 선입견을 변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김포에는 2009년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300여 명이 이웃으로 함께 살고 있다. 전시 기간 중 매일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혜왕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김포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10주년을 기념해 시민들과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포용성을 확장,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힘으로써 평화문화도시 김포가 가지는 가능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섬 사할린, 풍경과 얼굴>전시회는 5월 26일까지 이어진다고 전해졌다.

김포문화재단은 앞으로도 계속 사할린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올 6월에 사할린에서 또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순신 기자)
(사진: 주명수 화가 제공)

이 모 저 모

매주 아침 국민체조에 네벨스크 시민들 초대

5월 1일 공휴일에 네벨스크에서 매주 국민 아침체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시 체육학교 운동장에는 100명 이상이 모였다.

참가자들의 연령층과 직업, 체력수준은 다양했다. 국민체조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체력을 시험해보고 에너지를 충전하여 체력을 강화할 수 있다. 참가를 위한 엄격한 조건 없이 각자가 능력과 건강에 따라 운동을 하는 것이다.

네벨스크의 아침 체조는 매주 토요일 9시부터 체육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다.

Невельчан приглашают на еженедельную массовую зарядку

На первомайских выходных в Невельске стартовала еженедельная массовая зарядка. Более ста человек собрались на стадионе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города.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 люди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профессий и уровня физ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и.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может прийти, проверить свои силы, получить заряд энергии и повысить свой физический уровень. К участникам нет жестких требований, каждый выполняет упражнения по своим возможностям и самочувствию.

Утренняя зарядка проводится в Невельске еженедельно по субботам с 9.00 на стадионе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청년 관광객들과 학생들이 생태·생물학 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내다

시 청소년관광센터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물의 영역: 섬의 생태계>라고 불리는 향토 생태·생물학 퀴즈대회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되었다. 학생들은 행사에 벌써 11번째 참가하고 있다. 공동으로 주최한 <로드니크> 센터의 대표들은 심사위원회와 자원봉사단으로 참여했다.

제23, 32호 학교, 제1, 2호 리체이에서 온 방문객들은 청소년관광센터 학생들과 함께 고향 사할린섬의 동·식물군에 대한 지식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주내 방과 후 교육활동센터 강당에는 5학년에서부터 11학년까지 24개의 팀으로 구성된 학생 70명이 모였다.

<생물의 영역> 퀴즈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잊지 못할 추억과 새로운 지식을 쌓게 되었고, 참가 증명서와 <로드니크> 생태학 센터가 선사하는 화사한 달력을 선물받았다. 우승자와 시상자들에게 주최 측은 상장과 기념증서와 상품을 수여했고 팀장들에게는 학생들을 교육시킨 공로를 치하하며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청소년관광센터가 전했다.

Юные туристы и школьник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ыявили самых умных на эколого-биологической викторине

Краеведческая эколого-биологическая викторина "Биосфера: островные экосистемы" прош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ля учащихся из объединений городского центра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туризма.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для ребят уже в 11-й раз. Соорганизатором викторины выступил центр "Родни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торого вошли в состав жюри и волонтерского корпуса.

Проверить свои экологические знания о флоре и фауне родных островов вместе с юными туристами ЦДЮТ пришли гости из школ №23, 32, лицеев №1 и 2. В зал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нешкольной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собрались 24 команды из 70 ребят от 5 до 11 класса.

Все ребята "Биосферы" получили на память о викторине незабываемые впечатления, новые знания, сертификаты участия и красочные календари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Родник", призерам и победителям организаторы вручили дипломы, грамоты и призы, а руководителям команд — благодарности за подготовку ребят, сообщает центр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туризма.

포로나이스크에서 북방소수민족의 설화를 바탕으로 연극 상연

5월 1일 <센트랄니> 콘서트 공연장 무대에서 <멘구메 일가 - 은빛 문양> 민족 양상블의 <일루라, 엘바르와 게시메 가사(행복의 새)> 초연이 이뤄졌다. 연극 예술단은 북방소수민족의 예술적 혼을 광범위하게 반영한 작품을 관객들 앞에서 성공적으로 상연했다.

이 연극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된 <전통의 계승자>주 유·청소년예술축제에서 3위를 차지한 가운데 단1회만 상연되었었다. 포로나이스크에서의 상연은 처음인 셈이다.

<일루라, 엘바르와 게시메 가사(행복의 새)> 설화는 사랑과 선이 항상 악을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연극의 줄거리는 어린 소녀 일루아와 소년 엘바르가 아주 어린시절부터 함께 자주 놀며 우정을 키워나가는 주변환경에서 전개된다. 어느 날 부모들은 이 둘을 뺏아줄 약혼식을 거행하기로 한다. 그러나 약혼식을 방해하고 이 둘을 괴롭히려는 무당이 나타난다. 그러나 '게시메 가사(행복의 새)'가 지켜주어서 이들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악의를 품은 무당이 떠나가고 일루라와 엘바르의 우정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으로 발전하여 사랑에 빠진 그들은 혼인을 하기로 한다. 혼인식에 앞서 엘바르는 사냥을 하러 떠나는데 거기서 멧돼지의 형상을 한 악한 무당을 다시 마주치게 된다. 엘바르는 무당과 무당의 조수인 악한 여자귀신들과 싸움을 한다.

엘바르를 이긴 여자귀신들이 엘바르의 혼을 데려간다. 엘바르가 사냥에서 돌아오길 끝내 기다리지 못

한 일루라는 연인을 찾으러 숲으로 향한다. 그때 숲에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사랑하는 일루라가 생명을 되찾도록 '게메시 가사(행복의 새)'가 돕는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마을로 돌아와 혼인을 하게 되는데 선과 사랑이 악을 이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름다운 설화를 회상하게 한 연극예술단은 훌륭하고 예술적인 결과를 이뤄냈다. 배우들은 최대한 북방소수민족의 독창적인 문화를 펼쳐보였다. 연극에는 구술과 음악, 춤, 의식이 다채롭게 합성되어 있었다. 구술자들 - 갈리나 투말리, 나체즈다 자바로와, 미나토 시류코 - 을 동반하여 각각 자신들의 고유어인 -나나이어, 님프어, 우일타어 -로 설화를 구술했다. 다채로운 색채의 무대 장치와 가면, 화려한 의상과 민속악기 - 자칸기 바르가나, 차티즈 차르슈(통나무 악기), 루칼니(곰피리) -의 독특한 음향이 삽입되었다.

<멘구메 일가>예술단의 성인과 유·청소년 총 30명이 무대에 출연했다. 주인공인 일루라와 엘바르의 아역은 아나스타시야 최와 키릴 줄리코브, 성인 역은 크세니야 왈리예와와 알렉산드르 스, 부모역은 나탈리야 란사와 옥사나 오를러와, 행복의 새 역은 알렉산드라 바흐찌나가 맡았다.

Спектакль по мотивам сказаний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а показали в Поронайске

1 мая в Поронайске на сцене концертного зала "Центральный" с успехом прошла премьера спектакля "Илура, Элвар и Кэсимэ Гаса" народн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ансамбля "Мэнгумэ Илга — Серебряные узоры". Артисты ансамбля представили зрителям авторскую постановку, в которой отразили весь богатый спектр творческого наслед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пектакль был показан всего единожды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областном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м фестивал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Наследники традиций", где был удостоен диплома III степени. Поронайская публика увидела спектакль впервые.

"Илура, Элвар и Кэсимэ Гаса (Птица счастья)" — это легенда о любви, о том, что добро всегда побеждает зло. Сюжет спектакля разворачивается вокруг девочки Илуры и мальчика Элвара, которые с самого детства были дружны и часто играли вместе. Однажды их родители решили породниться и совершили обряд-помолвку. Во время ритуала появляется шаман, который хочет помешать обряду и обидеть детей. Но у него ничего не получается — детей защищает птица счастья Кэсимэ Гаса. Затаив злобу, шаман исчезает. Через много лет дружба Илуры и Элвара перерастает в любовь, и возлюбленные решают пожениться. Перед свадьбой Элвар уходит на охоту, где снова встречает злого шамана,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ет перед юношей в образе кабана. Элвар сражается в шама-ном и его помощниками — злыми духами-милками. Одолев юношу, милки забирают его душу.

(8면에 계속)

아시아나항공, 7월 8일부 사할린-인천노선 운휴

한인 동포,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1년간 사할린-인천노선을 운항해온 아시아나항공이 7.8일부로 운휴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안타까운 소식을 전달드리게되어 무척 송구스러우며, 한인 동포, 교민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줄 압니다.
저희 아시아나항공은 한인 동포, 교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속에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사고없이 여러분들 곁을 지킬수 있었으며, 정말 소중하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금번에 운휴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2014년말부터 시작된 러시아 경기 침체와 루블리 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러시아 지역을 운항하는 사할린, 하바로프스크 노선의 이용객이 감소하였고, 특히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루블리 가치 하락이 노선 운영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해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사할린노선을 지키고자 회사에서도 노력하였습니다만 다 말씀드리지 못할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제반 여건이 호전되어 다시 아시아나항공이 사할린 노선을 빠른 시일내 재운항할 것을 희망하며, 그간 저희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주신 모든 한인 동포, 교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사할린지점장 **홍정환** 배상

척주치료와 재활·물리치료 중심의 <힘찬-사할린>통증치료센터 개관

지난 29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베들레헴>회사에서 <힘찬 사할린>재활 및 통증치료센터 개관식이 있었다. 새 의료센터 개관 프로젝트는 사할린 측에서 <베들레헴>회사(사장 장용운), 한국 측에서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이 공동으로 계획 추진했다.



센터 개관식에는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수찬 힘찬병원 원장, <베들레헴>회사 장용운 사장, 유즈노사할린스크시행정부 엘레나 유르코와 사회복지국 국장, 사할린주 사회보호부 나탈리아 쿨레쇼와 수석전문가,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광기동 소장,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등이 개관식에 참가했다.

<베들레헴>회사 건물에 위치한 <힘찬-사할린>센터는 비수술 주사치료실, 원무과, 외래진료실, 재활·물리치료실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센터는 척추 비수술 주사치료와 재활·물리치료를 중심으로 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 센터에서는 영상을 통해 한국 힘찬 병원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 화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주 2회 정기적으로 한국의 힘찬병원 전문의가 화상시스템을 통해 사할린 현지에 있는 의사와 함께 환자를 진료하는 시스템이다. 이때 물리치료사가 배석하여 진료 후 물리치료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힘찬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은 사할린 주민 환자들이 사할린으로 돌아와 <힘찬-사할린>센터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영상을 통해 상담을 받은 후 한국 힘찬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이수찬 대표원장은 "사할린 힘찬병원에 한국식 의료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킨 후 러시아 극동지역 외에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등 지역으로의 진출을 추가적으로 모색함으로써 러시아 시장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사할린 힘찬병원이 러시아와 한국의 의료 교류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한국식 의료시스템을 통한 러시아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사 기자 / 이예식 기자 촬영

<에트노스>졸업생들의 멋진 발표

지난 5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 <로지나> 문화회관에서 <에트노스>예술학교 한민족과 학생들의 졸업 발표공연이 있었다. 올해 이 학교 8학년생인 <무궁화>무용단



(지도교사 최경순) 단원 6명이 졸업한다. 학생들은 관객들에게 여러 춤을 선사하고 3학년부터 8학년생들의 공연이 있었다. 이들은 무용과 사물놀이, 단소 연주와 보컬 실력도 한껏 발휘했다.

공연은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관객들의 환호는 뜨거웠다.
(취재: 이예식 기자)

사할린한인, 어버이날 기념

5월 8일에는 한국에서 어버이날을 기념한다. 최근에 들어 이 명절을 사할린 동포들도 기념하기 시작했다.

지난 4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1세 어르신 약 60여 명을 모시고 주한인협회의 청년부가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광기동 소장, 사할린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주한인노인회 김종길 부회장, 주한인협회의 청년부 이 세르게이 부회장을 비롯해 여러 내빈들의 축사가 있었고 각계 인사들은 행사장을 찾아온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여생을 보내시길 기원했다.

이날 한인문화센터 소속인 <하늘>사물놀이팀, <우리 미래>아동반, <아리랑>무용단, 강팔용 가수의 열띤 무대가 나이드신 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최 율리아, 김 웨철, 미야타 토시미 아마추어 가수들이 많은 노래를 선사했다.

그외 어버이날 행사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노인정, 샤흐초르스크한인회, 코르사코브한인회 등에서도 펼쳐졌다고 전했다.

(본사기자)



모 집 공 고

'제22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재외동포재단은 해외 각국에 있는 미래의 한인 차세대 지도자들의 역량결집과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동포인재들을 모국에 초청하여 세계한인차세대대회(The 22nd Future Leaders' Conference)를 개최합니다. 2019년 9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과 지방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역량 있는 차세대 동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목 적 :
- 재외동포 차세대의 역량결집과 네트워크 구축 활동 지원
- 모국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별 주요인재 발굴
기 간 : 2019. 9. 2(월) ~ 9. 6(금) <4박 5일>
지 역 : 서울(메리어트 동대문 스캐어) 및 지방(미정)
신청기간 : 5. 10(금) 한국시각 18:00 까지
온라인 지원신청 방법 :
- 접속 사이트 : www.korean.net
- 개인 : 온라인 지원신청서 작성후 신청 완료 (공관 제출 불요)
※ 첨부 자료 업로드 : 이력서, 여권사본, 재직증명서, 활동 및 경력 관련 언론기사, 수상 경력 등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15.00

Юбилей,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нкур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0-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нкурс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можно прис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vika131065@gmail.com,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43-67-85, 43-72-94.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0 мая 2019 г.

Призы:

Поездк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т.ч. путевка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в летний языковой лагерь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Генхи на 2 недели).

Лауреаты награждаются грамотами и подарками.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ают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Вспоминая прошлое

Корейский передвижной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14, 15, 16, 17)

Репертуарная поли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как ее понимали те, кто ведал в те годы делами культуры, должна была непременно отражать события советской истории. В 1957 году к празднованию 40-летия Октябрьской революции театр показал «Оптимистическую трагедию» В. Вишневского. Постановку осуществил режиссер Григорий Ким. Исполнителями главных ролей были Ким Татьяна (комиссар), Пак Чун Бе (Алексей), Ра Хан Су (Сиплый). За эту работу театр получил 1-е место на конкурсе театр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а актеры и режиссер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почетными грамотами. Таких же успехов добилась труппа театра после просмотра спектаклей «Волки» Ю Ти Хо, «Хынбу и Нольбу» Тхэ Дян Чуна (1958)

В 1958 году театр отметил свой десятилетний юбилей. В тот год труппа полным составом выехала на гастроли в Среднюю Азию. Надо сказать, что к тому времени коллектив корейского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был уже хорошо известен за предел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1956 года артисты начали гастроль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 городам Даль-

ся Корейским музыкально-драматическим театром Казахской ССР.

Трудная судьба этого театра и его самоутверждение как одного из интереснейш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драмати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бывшего СССР – отдельная тема, выходящая за рамки этой книги. Отметим лишь, что роль и влияние этого театра в становлении своего «меньшого брата» на Сахалине несомненны. Театр способствовал развитию национальной драматургии. В 30-50-е годы в содружестве с творческим коллективом театра создавали свои произведения драматурги Тхай Дян Чун (пьесы «Межа», «Рабы», «Счастливые люди», «Южнее 38-й параллели»), Цай Ен (пьесы «Сказание о девушке Сим Чен», «Радостная жизнь», «Рассвет»).

Основная тематика этих пьес –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шли и на сахалинской сцене – касалась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й борьб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участия корейцев в революции, коллективизации и советск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в СССР. Этой же проблематике были посвящены спектакли «Факел Тянь Фен До-на» (1934) – о крестьянском движении в старой Корее, «Корея в огне» (1952) – о борьбе с амери-



него Востока. Демонстрируя национальное корейское искусство, они встречал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и благодарных зрителей в городах Благовещенске, Владивостоке, Хабаровске, Комсомольске-на-Амуре. Но поездку в Среднюю Азию можно считать особенной, поскольку именно здесь в конце 30-х годов, в результате «сталин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сложилась довольно многочисленна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1937 году, ставшем своего рода нарицательной датой репрессивной политики сталинизма, в Казахстан «перевел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раевой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созданный еще в 1932 году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на основе местных драматических кружков. С 1937 по 1941 год этот театр работал в Кызыл-Орде, затем в 1942-1959 годах – в поселке Уш-Тобе Талды-Курга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наконец, с 1959 – снова в «красной столице» (так переводится с казахского Кызыл-Орда), являвшейся тогда центром одноименной области Южно-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края Казахской ССР. В 1964 году он стал называть-

канской интервенцией. Значительное место в репертуаре театра занимали музыкально-драматические постановки на сюжеты старинных романов и народных сказок.

Несмотря на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трудности и жесткий идеологический прессинг, за два десятилетия работы в Казахстане корейский драматический театр приобрел глубокие традиции, позволившие актерам и режиссерам сохранить творческий оптимизм и свою сценическую индивидуальность. Среди основоположников театра были крупные мастера сцены – народные артисты Казахской ССР Ким Дин и Ли Хам Дек, заслуженные деятели искусств Казахской ССР режиссеры Цай Ен и Ен Сен Нен, заслуженные артисты Казахской ССР Цой Бон До, Ли Гер Су, Н.П.Ли, Пак Чун Себ, заслуженный артист Узбекской ССР Ли Ген Хи и другие.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И.Цупенкова(Костанова)

(Из книги «Долгая дорога к большой сцене», 2001)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на работу молодых людей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ПК на уровне пользователя, корейский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Тел. 43-59-80, 43-67-85.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72-94.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 살리자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оссия с пониманием отнеслась к заявлениям КНДР о поэтап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Россия с пониманием отнеслась к заявлениям КНДР о поэтап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докладе по итога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саммита, состоявшегос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25 апреля, который направлен Национальной службой разведки РК в парламентский комитет по делам разведки. Хотя Москва согласна с тем, что Север должен быть полностью безъядерным, на саммите она выразила понимание позиции Пхеньяна, призывающей к поэтапному подходу к решению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В расширенном саммите участвовали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Ли Ён Хо и замминистра Чхве Сон Хи, а на ядерную проблему пришлось почти 70% всех обсуждений.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предостерег от решения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КНДР с позиции силы,- говорится в докладе.

Минобороны РК: Пхеньян испытал тактическое управляемое оружие и пусковые установки

4 ма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провели испытания так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яемого оружия и реактивных систем залпового огня. Как сообщили в воскресенье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К, военные эксперты полагают, что были испытаны 240-мм и 300-мм ракетные установки залпового огня, а также новый тип так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яемого оружия. Фотографии, опубликованные агентством ЦТАК, указывают на то, что запускались ракеты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класса «земля-земля» -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версия российской ракеты «Искандер». По данны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ракеты пролетели от 70 до 240 км, однако дальность таких твёрдотопливных ракет достигает 500 км. Этого достаточно, чтобы охватить весь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и нейтрализовать системы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ы США THAAD. Пуски таких ракет практически невозможно предотвратить, поскольку они запускаются с мобильных установок. Данные виды оружия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сь во время военного парада в феврале 2018 года, но их испытания ранее не проводились, сообщили в объединённом комитете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Это оружие не идентично тому, что было испытано в апреле, и которое в Пхеньяне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и как «кновое тактическое управляемое оружие для наземного боя».

В РК отзывают 11.500 импорт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Министерство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РК распорядилось отозвать 11.500 импорт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58 моделей. В частности, отзыву подлежит 2.461 автомобиль производства BMW – модели 320d и 116i – из-за проблем с аккумулятором. Около 2 тысяч машин 22 других моделей производства BMW, в том числе 523i, будут отозваны из-за неисправности системы отопления. Ещё 2 тысяч автомобилей семи моделей производства Volkswagen, включая Golf 1.4 TSI, отзываются из-за дефекта трансмиссии. Четыре модели Audi, в том числе TT Coupe 45 TFSI Quattro, должны быть отозваны из-за дефектов в подушках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оизводства японской компании Takata. 1.300 машин двух моделей Honda, включая Accord, также отзываются из-за проблем с подушкам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сё больш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роживают в РК долгое время

В РК растёт до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роживающих в стране более 10 лет.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 делам женщин и семьи, в 2018 году показатель вырос на 12,7%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5 годом, составив 60,6%. Одновременно доля тех, кто сталкивался с дискриминацией, сократилась на 3,4%, составив 30,9%. Треть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ом, не испытывают трудностей в адаптации к жизни в РК.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улучшился. Однако на 5,6% выросла до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аких семей, которые в качестве трудностей называют одиночество. Отметка составила 24,1%. Речь идёт об отсутствии или нехватке людей или организаций, которые могли бы помочь в сложных ситуациях. 45,8% детей в таких семьях приходятся на возрастную группу от 9 до 11 лет. В общем 9,2% детей сталкиваются с дискриминацией. Это на 2,3% больше, чем три года назад. Особо отмечается уязвимость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о сравнению с их ровесниками-южнокорейцами. Всего в стране насчитывается 306 тыс.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31,1% из них приходятся на китайцев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23,4% - на вьетнамцев, 19,3% - на китайцев.

(RKI)

За особую храбрость, самоотверженность и мужество

В. Цой

Автобиография.

Сын крестьянина, родился в 1904 году в селе Синельниково Молотовского района ДВК, с восьми лет учился в местной сельской школе (с 1912 по 1916 год). Окончил её в двенадцать лет. Продолжал учёбу в средней школе до 1923 года. С 1923 года по 1925 г. занимался земледелием вместе с отцом в родном селе.

В 1925 г. осенью поступил в Московскую пехотную школу и окончил её в 1928 году.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школы был назначен командиром взвода 107 полка г. Даурия.

В 1931 году получил высшую должность и был направлен командиром роты 76-го стрелкового полка Сталинской дивизии. В 1934 году назначен командиром учебной пулемётной роты в той же дивизии. В 1935 году назначен помначальника штаба 2-го Нерчинского стрелкового полка 1-ой Тихоокеанской дивизии. В 1936 году назначен начальником полковой школы 629-го стрелкового полка в гор. Арзамасе при 17-й стрелковой дивизии.

С 1937 года по 1940 год учился в Московской академии им. Фрунзе.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Академии, осенью, назначен командиром батальона в 409-ом стрелковом полку 137-й дивизии в городе Саранске.

С началом войны назначен начальником штаба 409-го полка в той же дивизии. В сентябре 1941 г. был ранен и лечился в Сталинградском госпитале. После выздоровления в конце 1941 года назначен начальником штаба 1169-го полка, который стоял в гор. Астрахани. В марте 1942 года участвовал в боях Изюм-Воронежском, Краматорском, Харьковском направлениях. В июне 1942 года был назначен командиром 1173 стрелкового полка той же дивизии. В бою под Ростовом-на-Дону в сентябре 1942 года был ранен и лечился в Махачкалинском госпитале. После выздоровления был назначен командиром 1339-го стрелкового полка 58-й армии.

В бою под Арденом был ранен и лечился снова в Махачкалинском госпитале. После выхода из госпиталя назначен командиром 111-го Гвардейского Краснознамённого полка 46-й армии 3-го Украинского фронта. Снова попал в госпиталь. С 1944-го по 1945-й год — командир 703-го стрелкового полка и участвовал в боях под Будапештом. После взятия Будапешта получил направление на Берлин.

В 1945 г., после капитуляции Германии, наш полк был расформирован, я был назначен командиром 323-го стрелкового полка 43-й дивизии. Наш полк прошёл через Румынию и остановился в гор. Одессе. В 1946 году 323-й стрелковый полк 43-й дивизии по 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занимал первое место в Одесском округе.

По неизвестной причине по приказу № 100 я вышел в отставку.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награждён четырьмя орденами Боевого Красного Знамени (здесь так и написано — четырьмя, хотя в архиве нашлись сведения только о трех — В.Ц.) и орденом Красной Звезд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сполняю должность заместителя директора по политической части на Рыбокомбинате им. Микояна «Главкамчатскпрома». Проживаю в Камчатской области, Усть-Большеерецком районе, Рыбокомбинате им. Микояна.

Гвардии подполковник КИМ Н.А.
1949 года, апреля месяца, 15 числа.



Командир 1277-го стрелкового полка, майор Н.А. Ким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ий фронт
Июнь 1943 г.
Фото ЦАМО РФ

Первым советским орденом Боевого Красного Знамени награждали, как записано в положении, «за особую храбрость, самоотверженность и мужество, проявленные при защите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Отечества». У маршалов Василевского и Толбухина было два таких ордена, у маршалов Жукова, Говорова, генералиссимуса Сталина и подполковника Кима — три! На фоне известного «корейцев на фронт не брали» такой факт заставляет невольно задуматься. Откликнулся на наши публикации о фронтовиках его племянник Анатолий Ким. Пришёл с кипой документов, фотографий: «Надо, чтобы о нём знали не только родственники. Это всё сохранила и прислала его дочь Нина. Она сейчас живет в Омске».

Николай Андреевич Ким (Чонг Пхунг) был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с первого до последнего дня. Он вступил в войну уже зрелым боевым командиром, за плечами были события на КВЖД, война с белофиннами, Академия им. Фрунзе. Как попал на фронт, как воевал, он кратко описывает в автобиографии, которую прилагал к заявлению министру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Чтобы хоть немного расшифровать, что скрывается за скупыми строчками автобиографии, мы с Анатолием Николаевичем отправились в знаменитый Центральный архив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ЦАМО), что в Подольске.

И вот у нас на руках личное дело Николая Андреевича Кима, учётно-послужная карточка, учётная карточка награждённого, наградные листы. Это всё настоящие документы тех времён, заполненные между боями, пропахнувшие порохом...

Строки из наградного листа: «Тов. Ким командовал 545 стрелковым полком в период с 15.1–15.2.43 г., и с марта 1943 г. — 1277 стрелковым полком. За этот промежуток времени прошёл с боями от г. Пятигорска до низовья Кубани, выбивая противника из населённых пунктов и тактических рубежей. В результате успешных действий и непрерывного преследования, полком занято и освобождено более 20 крупных населённых пунктов, выведено из строя свыше 1000 немецких солдат и офицеров, много техники.»

Из боевой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Работая командиром 133 стрелкового полка 319 стрелковой дивизии с октября 1942 г., показал себя исполнительным, трудолюбивым, аккуратным при выполнении своих служебных обязанностей, имеет достаточный опыт в командовании полком в боевой обстановке. Полк поставленные боевые задачи выполняет. Много уделяет внимания сколачиванию подразделений для выполнения боевой задачи, заботливо относится к бойцам и командирам...»

И ещё одна примечательна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из аттестационного листа: «В бою спокоен». Так он воевал.

Рассказывает племянник Анатолий Ким:

— Николай Андреевич меня фактически вырастил. Мы тогда жили на Куйлюке в Ташкенте: отец, мать, две сестры. В послевоенное время нам приходилось трудно. Я был хулиганистым, учился плохо. В 1961 году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ядя приехал на юбилей брата и забрал меня к себе. Было такое в традиции корейцев: детей отдавали в семь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чтобы они воспитывались в строгости. В нашей семье тоже одно время росла дочь дяди, та самая Нина. Бикин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где тогда жил дядя, был полувоенным городком с населением 30 тыс. человек. Дядя работал в горкоме партии, видный, известный в городе человек. Кроме меня, у него в семье воспитывались ещё двое племянников. Своих детей дядя с женой уже вырастили, теперь поднимали племянников. Скажу, что благодаря ему я и школу окончил, и вуз, сегодня сам преподаю в институте.

Детство его пришлось на разгар антияпо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российском Приморье. С 15-ти лет партизанил, вспоминал, как сам в гражданскую топил японцев в проруби.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Московской пехотной школы в 1928 году вернулся в Приморье. Здесь он прошёл путь от командира взвода до помначштаба полка.

О войне не любил рассказывать. Как-то сказал моему отцу: «Не нужно, Коль, расспрашивать об этом, слишком тяжело. Там было много плохого...» До последних дней спал с пистолетом под подушкой, однажды я прибирал постель, вдруг смотрю — пистолет! А стрелял он метко, когда ходили с ним на охоту, промахов не было.

После отставки ему были сохранены права на ношение формы. Военным он остался навсегда. И ещё деталь. Он так и не научился завязывать шнурки — всю жизнь в сапогах. Когда незнающие дарили обувь со шнурками, смеялся: «В них я далеко не уйду».

А вообще был очень общительным, имел много друзей-

фронтовиков, принадлежал к старшему комсоставу. В военном городке его знали все. 23 февраля и 9 мая были его днями. С утра приезжали за ним из части и привозили поздно вечером.

Ему было очень обидно и непонятно, почему его, боевого командира, в расцвете сил и лет (42 года!) после войны вдруг отправили на какой-то рыбокомбинат в глухую, неведомую Камчатку. Это воспринималось как ссылка. Так оно и было. Сказалась общая антижуксовская политика в армии в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 А ведь ещё в 1940 году приказом № 580 за подписью наркома обороны Тимошенко он был награжден знаком «Отличник РККА».

Из заявления министру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Никаких граждански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не имею, к гражданской жизни не привык. Такая жизнь, какую я вынужден вести последние полтора года, как солдата-профессионала, должен признаться, абсолютно не удовлетворяет. И поэтому прошу восстановить меня в прежней должности...»

Из ответа министра: «Ваше письмо на имя Маршал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тов. Малиновского им получено... Все материалы по Вашему продолжению службы в армии находятс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возможно Министр найдёт возможным вернуть Вас в ряды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Классическая бюрократическая отписка...

После Камчатки он приехал в Бикин, работал директором кирпичного завода. Потом в Розенгартовке, недалеко от Бикина, организовал корейский рисоводческий колхоз. Хозяйство получилось крепким, давало хорошие урожаи, одних корейских дворов было около пятидесяти. В хрущёвскую чехарду колхоз оказался неперспективным... Сейчас там ничего нет. Ему не было и шестидесяти, когда он снова оказался не у дел...

Николай Андреевич умер 7 декабря 1976 года. Город Бикин хоронил его со всеми военными почестям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портал корейцев СНГ АРИРАН.РУ.

2010. 9 мая.
(Из книги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С праздником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поздравили ветеранов воспитанники анивского детского сада «Рябинка»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74-летию окончания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прошло в Аниве. На главной площади города для гостей дошколята исполнили военные песни, а в рамках акции «Я помню! Я горжусь!» раздали свои «письма с фронта».

Инициаторо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 дошкольный патриотический отряд имени Ильи Муромца. Он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работает на базе детского сада №3 «Рябинка». Группа дошколят к мероприятию подошла осознанно, дети читали рассказы о войне, готовили видеозаписки и учились маршировать. Сегодня ребята пришли, чтобы лично поздравить ветеранов.

После коротких музыкальных номеров и рассказов о войне, воспитанники отряда раздали фронтовые письма. Трогательный атрибут праздника дети подготовили сами. Каждый вложил в треугольный конверт свой памятный рисунок. Дошколята подарили свои работы ветеранам и прохожим на улице.

- Эти письма мы специально подготовили, чтобы люди никогда не забывали, какой ценой досталась нам Победа. В конвертах вложено пожелание нынешнему поколению от тех, кто не вернулся из боя. В своем письме я простым карандашом нарисовал танки с солдатами и военные самолеты, – рассказал участник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отряда Дмитрий Глебов.

С особым трепетом к выступлению ребят отнеслась заведующая детским садом «Рябинка» Марина Логвинова.

- Я очень рада тому, что у нас есть такой отряд. На самом деле, трудно воспитать в людях чувство патриотизма. Только благодаря таким мероприятиям можно на себе прочувствовать всю боль тех трагических дней. Готовясь к мероприятию, наши дети доказали, что память о предках, героях войны им особенно дорога. Они настоящие патриоты и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ы нашим ветеранам и тем, кто, к сожалению, погиб, защищая Родину.

В завершении мероприятия дети вместе с ветеранами исполнили легендарную песню «Катюша».

Кадровый конкурс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едут во второй раз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оводится подготовка по проведению осенью этого года нового кадрового конкурса.

Первый конкурс,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с 18 февраля по 22 апреля, стал эффективным механизмом формирования кадрового резерва региона. Желание стать частью «Команды» выразили более 1300 человек, 55 молодых управленцев признаны победителями. 22 лучших участника уже получили кадровые назначения.

–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конкурсу мы узнали о множестве талантливых молодых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чьи навыки и идеи могут сделать жизнь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более комфортной. Но мы в области ставим перед собой амбициозные задачи,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которых потребуются совершенно раз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Поэтому решено набрать «Команд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 второй раз,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градой для первой десятки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стал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гранты по 1 миллиону рублей. Двое участников получили гранты на реализацию своих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Но, самое главное, победители первого кадрового проекта получили реаль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занять руководящие должности в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рганах власти.

Так, победитель – Максим Жоголев – сегодня исполняет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 Егор Умнов стал исполняющим обязан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больше половины победителей кадрового проекта –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Они хорошо знакомы с проблемами родного региона,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ергей Наумов. – Во втором конкурсе мы учтем все нюансы и усовершенствуем оцено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этого, отметил зампред,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ригласят руководителей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бизнес-корпораций.

Основа кадрового проекта останется прежней. Конкурс будет состоять из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и очного этапов. Желающим стать частью «Команды» сначала предстои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на сайте, заполнить анкеты и написать эссе. После конкурсантов допустят до онлайн-тестирования. По его результатам станут известны имена финалистов, которых приглася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Здесь участникам нужно будет справиться с заданиями, моделирующими управлен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блюдательный совет, как и ранее, будет следить за тем, чтобы у всех конкурсантов были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Победители будут включены в кадровый резер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могут занять руководящие должности в органах власти и на ведущ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региона.

Больше 4 млрд выделяют на программу переселения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на Сахалине в 2019 году

В этом году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рограммы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из аварийного и ветхого жиль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величено в три раз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и составило 4,1 млрд против 1,2 млрд рублей годом ране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улучшении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нуждаются свыше 50 тысяч человек.

Решать вопрос с расселением будут сам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Работа ведется по несколь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Так, 3,2 млрд рублей заложено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квартир на первичном рынке у застройщиков, а также на вторичном рынке. 800 млн рублей выделяют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домов. 31 млн рублей предусмотрен на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устующе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жилфонда, еще 100 млн рублей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потратят на выкуп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у собственников.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начало 2019 года объемы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составили 262,2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Чтобы ускорить возведение новых домов,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цикл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сократят - выход на этап возведения жилья стал меньше на 30 дней. Возводить дома будут, в том числе на землях, которые передаст в ведение региона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ороны РФ, такая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уже достигнута.

«Наша цель – создать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жизни людей, обеспечить им достойную работу и жилье, возможность качественного отдыха. Только решение этой задачи поможет прекратить отток людей. Доступное, комфортное жилье – это абсолютна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чтобы люди оставались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аботали здесь, рожали детей. Отставание копилось годами и сегодня решение этих вопросов, устранения причин, по которым люди уезжают, требует кардинальных мер. Мы эту работу ведем и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ланов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центр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и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и, безусловно,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торой идет сегодня», - сказал Министр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Александр Козлов.

Отметим, регион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из аварийных домов реализуе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развитием стартовавших в октябре-декабре 2016 года приоритетных проектов «Ипотека и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Обеспеч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ых услуг» и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Сахалинские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готовятся к борьбе за бюджетные миллионы

С 1 по 20 мая в регионе пройдет област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за инициативы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Каждый сахалинец и курильчанин сможет поддержать два предложения от двух разны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Всего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вынесли 32 проекта от всех 18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Программа реализуе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лавы региона. В этом году общий бюджет, который распределят между победившим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составил 1 миллиард рублей. Это самая большая сумма среди всех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запустивших у себя аналогичные проекты. Каждый победитель будет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сумму до 1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дает людям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ложить идею, как преобразить свой родной город или село, и воплотить ее. Только советуясь с людьми, мы создадим максимально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жизни, – заяв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реди инициатив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ма культуры в Новой деревне,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в Долинске, Поронайске, Вахрушеве, Охе, Чапланово, Макарове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е. Жители Синегорска предлагают проголосовать за реконструкцию улично-дорожной сети поселка. Еще несколько проектов касаю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модернизации систем водоснабжения. С полным перечнем инициатив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https://pib.sakhmfin.ru/events/seminars/meetingTD19_3. Поддержать общественно значимые проекты можно будет на портале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 <https://pib.sakhmfin.ru/vote>, в разделе «Открытое голосование».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авторизоваться с помощью логина и пароля от Госуслуг. У каждого будет по два голоса, которые можно отдать за предложения от двух разных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ов.

Чтобы охватить максимальное число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желающих поддержать понравившуюся инициативу, районны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рганизуют стационарные пункты для голосования. Также 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будут запущены мобильные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центры, в которых можно будет отдать свой голос.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состоится в День России, 12 июня.

Напомни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з 35 заявленных проек-

тов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11. Большинство жителей проголосовали з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портив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лагеря в Долинске, стадиона в Поронайске и системы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селе Парусном. Победившие тогда проекты будут реализованы в 2019 и 2020 годах.

Победитель конкурса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учил должность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транспорта

Исполняющим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егиона назначен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Новый сотрудник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меет 8 ле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пыта в сфере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их услуг.

Максим Алексеевич роди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9 августа 1988 года. В 2010-м окончил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утей сообщения, инженер путей сообщения. В 2018 году получил второе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экономиста.

С мая 2012 по апрель 2013 занимал должность главного инженер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стан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Сахалинской дирекции управления движением филиала ОАО «РЖД». С 2013 по 2014 годы - начальник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станции Холмск. Руководил коллективом из 70 человек. До назначения в област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ботал начальник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центра фирм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О новом сотруднике и участнике конкурса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сказался куратор проект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ергей Наумов.

- Участвуя в конкурсе, Максим Алексеевич проявил себя как компетентный и грамотный управленец, хорошо знающий специфику транспортной отрасли, - сказал Сергей Наумов. – В целом, кадровый проект позволил выявить целую серию молодых лидеров. Уверен, их идеи вскоре принесут свои результаты и помогут развивать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Ранее назначение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гиона получил еще один победитель кадрового проекта Егор Умнов. С 8-го мая 2019 года он исполняет обязан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я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Мобильный офис поможет жителям отдаленных сел Сахалина перейти на новую систему обращения с отходами

В середине мая в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отправится специальная машина. Мобильный офис укомплектован техникой,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на месте вывести платежный документ, произвести оплату, подать заявку для заключения договора на вывоз ТКО.

Такой формат работы предусмотрен для удобства жителей отдаленных сел. В мобильном офисе любой желающий сможет получить подробную консультацию по вопросам перехода на новую систему обращения с твердыми коммунальными отходами.

Работать мобильный офис будет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ежемесячно анонсируя график поездок с датами посещения каждого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Сначала машина отправится в Макаровский, Углегорский, Тымовский и Смирновский районы. Запланированы поездки в села: Поречье, Ольшанка, Краснополье, Никольское, Бошняково, Иркир, Чир-Унвд, Палево, Белоречье, Рошино, Первомайск, а также СНТ 1905 и Лиственничное.

– Мы планируем сделать максимально комфортной процедуру подписания договора на вывоз твердых коммунальных отходов. Каждый посетитель мобильного офиса може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его заключение, а через месяц, когда машина опять приедет в населенный пункт, забрать уже подписанный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 рассказа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ператора – АО «Управление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 Лилия Степанова.

Еще одной из функций мобильного офиса станет проведение регулярного мониторинга состояния площадок по накоплению ТКО. Это позволит выявить сложности с регулярным вывозом мусора. Специалисты будут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как специально предусмотренные площадки, так и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е свалки.

Напомним, ранее перед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 за пять лет завершить переход на новую систему сбора и утилизации ТКО. Она позволит максимально сократить захоронение отходов, наладить их переработку, избавиться от нелегальных свалок и, в результате, улучшить экологическую обстановку на островах.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для наименее социально защищенных категорий граждан введены льготы на оплату услуг по вывозу мусора. Для ветеран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детей войны» плата снижена до 1 рубля за квадратный метр жилья, а для малоимущих – до 2 рублей. Льготой также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инвалиды, семьи с детьми-инвалидами, многодетные и студенческие семьи, ветераны и инвалиды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여성독립운동 서울전] ④적을 부수고 새집을 세우고

(전호의 계속)



의열단원 박차정(왼쪽)과 의열단장 김원봉의 결혼사진. [독립기념관 제공]

부산 출신의 박차정은 근우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광주학생운동 동조 시위를 주도하다가 중국으로 망명해 의열단장 김원봉과 결혼하고 의열단원으로 가입한다.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제1기 여자부 교관으로 사관생도를 양성하는 한편 1938년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자 부녀복무단장으로 항일전투에 뛰어든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차정과 함께 의열단원 연락책을 맡았던 이병희, 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원으로 항일 선전사업을 펼친 이화림의 활약상도 만날 수 있다.

4부의 제목인 '적을 부수고, 새집을 세우고, 새 삶을 찾자'는 지복영의 연설에서 따온 것이다. 그는 "대한의 잔 다르크가 되라"는 아버지 지청천 광복군 총사령관의 말에 따라 광복군에 지원하며 최전선에 배치해 달라고 요청한다. 주변에서 위험하다며 말리자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뜻을 관철하라고 한다. 딸의 편지를 받은 지청천도 "내가 남의 자식도 사지에 보내는데 내 자식이라고 못 보내겠느냐. 잘 생각했다"라고 허락했다. 그 아버지에게 그 딸이었다.

지복영은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전시장에서는 광복군의 여성 군복과 함께 지복영이 간직해온 앨범도 선보인다.

광복군 2지대장 이범석과 결혼한 고려인 후손 김마리아는 광복군에서 러시아어와 중국어 교관으로 활약했다. 김학규 3지대장의 부인 오광심은 민족혁명당 부녀부 차장을 거쳐 광복군에서 기관지 '광복' 간행과 초모 활동 등을 맡았다.



여성 광복군 오광심. [국립여성사전시관 제공]

창설 당시 광복군 수는 70명 가량이었다가 광복 직전에는 700~800명으로 불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처음에 오광심·김정숙·지복영·조순옥 등 6명이던 여성 대원도 100명 가까이 늘었으나 기록이 남아 있는 여성 대원은 20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광복군 생존자 민영주(96)·오희옥(93)·유순희(93)의 증언을 듣는 코너도 마련된다.

'한국의 잔 다르크'란 영예로운 별명을 얻은 지복영은 "이중 삼중의 압박에 눌리어 신음하던 자매들! 어서 빨리 일어나서 이 민족해방 운동의 뜨거운 용로 속으로 뛰어오라. 과거의 비인간적 생활은 여기서 불살라 버리고 앞날의 참된 삶을 맞이하자"라고 호소하며 조국 광복이 민족의 독립과 여성의 해방을 이루는 길임을 역설했다.

오광심도 '광복' 창간호에서 "광복군은 남자의 전유물이 아니요. 우리 여성들이 참가하지 아니하면 마치 사람으로 말하면 절름발이가 되고 수레로 말하면 외바퀴 수레가 되어 필경은 전진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라며 양성평등을 역설했다.

제4부에서는 '제시의 일기'도 전시된다. 1938년 7월부터 독립운동가 최선화가 남편 양우조와 함께 딸 제시를 키우며 겪은 이야기를 기록한 이 일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주에서부터 중경까지 이동한 과정,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정 요인들이 일제의 패망 소식을 접한 반응 등을 상세하게 담아 소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전시의 대미는 설치예술가 강애란의 작품 '미래를 비추는 지혜의 탑'이 장식한다.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과 기록을 디지털 책으로 형상화했다. 대부분 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간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과 경험을 재조명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는 염원을 담았다.

그림공모전과 UCC 공모전 수상작들도 소개된다.

(끝)

(출처: 연합뉴스)

[우리말로 깨달다]

세수와 깨달음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미얀마 만달레이에 가면 마하무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미얀마의 3대 보물 중 하나인 불상이 있습니다. 만달레이에 특강을 갔다가 새벽 예불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정말 많은 사람이 예불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관광객보다는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간절함은 늘 따뜻합니다. 간절함은 늘 감동을 줍니다. 가만히 마음을 가다듬고 앉아있으니 저도 경건해지고, 간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새벽 예불의 주요한 예식은 부처님의 얼굴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양한 형식이 함께하였지만 저는 세수를 하는 장면의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얼굴을 씻어주는 사람의 모습에서도 감동이 있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애절하게 기도하는 미얀마 사람의 모습에서 순수한 바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바라 그렇게 안쓰러운 표정으로 연신 기도를 올렸을까요?

정말로 정성스럽게 세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경건함과 깨달음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세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옵니다. 같이 간 미얀마 선생님들의 말에 따르면 저렇게 닦은 물을 다시 나눠주어 집으로 가져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부처님을 닦은 물마저도 귀한 겁니다. 미신 같은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간절함이 가득한 모습이 기억납니다. 물을 받기 위해서 늘어선 줄이 길었습니다. 새벽 탁발승에게 공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문득 마하무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쉽게 부처님의 얼굴을 닦아주어야 공덕을 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분이니 귀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역시 깨달아야 하는 존재이기에 스스로도 충분히 귀한 존재임을 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부처님의 얼굴을 닦아줄 수도 없고, 직접 닦을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새벽 예불에 가서 부처님의 얼굴을 정성스레 닦아주듯이 우리 스스로의 얼굴도 정성껏 닦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세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매일 아침이 우리에게 주는 공덕을 쌓는 시간이겠네요. 세숫물을 집으로 가져올 필요도 없겠네요.

부처님을 얼굴을 닦듯이 나의 얼굴을 닦으며 살아온 내 인생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얼굴은 나의 인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진 주름은 때로 내 웃음자국입니다. 기뻐서 웃어도 주름이 생기죠. 어떤 주름은 내 괴로움의 흔적입니다. 이마와 양미간(兩眉間)에 점점 깊어져 가는 주름은 때로 서글픈 느낌을 줍니다. 참 외로웠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생각하니 스스로가 가여워지기도 합니다. 기쁜 주름과 괴로운 주름은 모습이나 느낌이 다릅니다. 앞으로 기쁜 주름이 더 늘어나기 바랍니다.

누구나 자신의 얼굴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접 하나에도 사연이 있고, 상처 하나에도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모르는 내가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저렇게 생겼었구나 하고 놀랄 때도 있습니다. 내 눈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코는 어떤가요? 제 귀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제 귀를 그릴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어릴 때 제 귀가 부처님 귀처럼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세히 보면 꽤 괜찮은 듯해서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눈도, 귀도, 코도 다시 바라보고 고마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네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참 나를 잘 지켜주었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 듣는 세상, 냄새 맡는 세상이 귀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도 귀도 깨끗이 씻어 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세수를 하며 공덕을 쌓습니다. 그리고 내가 귀함을, 사람이 귀함을 몸으로 깨닫습니다. 세수는 깨달음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급변하는 뉴 미디어 시대, 이해와 대처 필요

1인 미디어 시대, 세계적인 언론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세계한인언론인협회의 가장 큰 저력은 각 나라의 생생한 정보를 콘텐츠화 할 수 있는 힘이다. 하지만 과거의 미디어와 현재의 미디어는 180도 다르다. 지상파, 케이블방송, IPTV와 같이 해당 국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각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미디어 형태에서 인터넷 기반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소통 중심 OTT(Over The Top) 미디어 시대가 왔다. 유튜브, 넷플릭스가 그 대표적인 예다. 뉴 미디어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방법은 기존 미디어 사업자가 급변하는 미디어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찾는 것이다.

뉴 미디어 시대가 열렸다

1인 미디어, SNS, OTT라는 단어는 이미 수많은 언론을 통해 미디어 변화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지 오래다. 하지만 방송 관계자조차 명확한 이해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강현 에이스텍 대표이사가 지난 4월 30일 대한민국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8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첫번째 특강에 <OTT 1인 미디어,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강연

을 통해 세계한인언론인협회가 미디어 변화에 맞춰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지 이해를 돕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미디어의 변화,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

요즘 전세계 젊은 세대는 주로 검색을 할 때 포털 사이트보다 유튜브를 이용한다. 대한민국 1인방송 시청자의 92%는 유튜브로 동영상 시청한다. 네이버, 아프리카TV의 시청률은 한자리 수에 불과하다. 왜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유튜브의 동영상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유튜브에 비해 낮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아프리카 TV의 지난 10년, 3개월간 주가 도표를 비교하면 아프리카TV는 꾸준히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네이버는 근래 3개월 주가 하락세를 보인다. 이강현 대표는 “아프리카 TV 10년간 주가는 상승했다. 아프리카TV의 주 수익원은 1인미디어의 주인공인 BJ다. 아프리카TV가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3,000명의 BJ가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하고 만들어내는 콘텐츠다.”라고 설명했다.

콘텐츠와 소통에 E-Commerce가 더해져 더욱 큰 파급 효과를 낸다. 이 대표는 중국의 왕홍(‘왕뤄홍런(网络红人)’)의 줄임말로 온라인상의 유명

인사를 가리킴)이 남대문 시장에서 단 1시간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1,000만원 매출을 올리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른바 ‘왕홍 마케팅’에 이미 동대문 상가, 면세점에 뛰어들어 짭짤한 수익을 내고 있다. 단순히 콘텐츠 제공과 소통을 넘어선 형태가 뉴 미디어의 맹점인 것이다.

세계한인언론인, 변화하는 흐름을 선도한다

이강현 대표는 세계한인언론인이 OTT 사업을 고려할 때 한류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에 우호적인 아시아 시장을 먼저 공략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고 전망하며 “한류스타 BTS(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전세계 아시아의 인구수가 유럽, 미국에 비해 더 많아 다량의 클릭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 시장에서 놀라운 파급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케이팝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 언어를 어떻게 콘텐츠화 하여 아시아 시장을 장악할지가 숙제다.”고 덧붙였다.

750만 재외동포를 대변하는 세계한인언론인과 함께 OTT 기반의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 각 회원사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로 각 국가 시간대에 맞춰 채운 24시간 방송. 각 나라의 콘텐츠를 공유, 방송 기술을 협력하여 전 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E-Commerce를 실현하는 것, 과연 꿈 같기만 한 얘기일까?

【한국(서울)=세언협공동취재단】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Не дождавшись Элвара с охоты, Илура идет в лес. В лесу победить силы зла и вернуть к жизни своего возлюбленного Илуре снова помогает птица Кэсимэ Гаса. Возлюбленные возвращаются в село и женятся. Добро и любовь побеждает зло.

Творчески переосмыслив красивую легенду, ансамбль получил удивительны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езультат. Артисты в полной мере раскрыли самобытную культуру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В спектакле соединились устное и музыкальное творчество, танцы и обряды. Действия артистов сопровождалось повествованием сказительниц — Галины Тумали, Надежды Джаббарово и Минато Сирюко. Каждая из них рассказывала историю Илуры и Элвара на своем родном языке — нанайском, нивхском и уйльтинском. Особый колорит привнесли декорации, маски, яркие костюмы, звуки национальных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 заканги-варгана, тяттич-чхарш — музыкального бревна, лукални — медвежьей дудки.

Всего в спектакл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30 человек — взрослая и детско-юношеская группы "Мэнгумэ Илга". Главные роли Илуры и Элвара в детстве исполнили Анастасия Че и Кирилл Жуликов, взрослых — Ксения Валиева и Александр Сы, роли родителей — Наталья Ланса и Оксана Орлова, Птицы Счастья — Александра Бахтина.

사할린의 클로포브카 모스크바 학술대회 참가자들에 게 경이로움을 선사

5월 3일 모스크바에서 <사할린 에너지> 회사의 후원으로 <러시아의 슬로우 푸드(느린 음식)>비영리 단체가 주최한 <토착민의 음식과 문화 속의 야생식물>학술회가 열렸다.

학술대회는 <북방의 보물> 국제전시·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사할린 에너지>회사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전 러시아의 각 지역에서 19개 팀이 참가한 학술대회는 하루 전날 야생식물 경연과 연계되어 진행됐다고 한다.

사할린주 사회원 위원인 예카테리나 코롤레와는 민속학적,언어학적, 문학적 자료들의 소논문들을 토대로 구성된 <사할린 소수민족의 식습관에 나타난 크라스니카>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 발표 덕에 북방 주민들과 사할린 주민들에게도 잘 알려진 클로포브카에 대한 새롭고 폭넓은 지식을 알리게 되었다.

치르운브드 마을에서 온 <코이원군> 님프 소수민족 원주민 가족 공동체의 대표 타치아나 시칼리기나는 티모브스코예 골짜기의 야생식물들에 대한 흥미로운 세부목록이 적지 않다고 전하고 그들의 가족 대대로 전해내려오는 전통적인 지식과 연관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학술회에서는 아무르주, 케메로브주, 사하공화국,추코트카, 타이미르, 네네츠크 자치구, 알타이공화국, 티바, 크라스노야르스키 변경 및 기타 지역에서는 참가자들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발표자들은 야생식물들의 조리법과 이용법을 비롯해 채취와 보존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하고 몇몇 지역에서 야생식물들을 기념하는 명절에 대해서도 전했다.

Участников москов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удивили сахалинской клоповкой

3 мая в Москве прошла конференция «Дикоросы в питании и культуре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лоу Фуд в Росси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Она была запланирована в программ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и-ярмарки «Сокровища Севера».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в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конференция является логическим продолжением прошедшего накануне конкурса дикоросов, в котором участвовали 19 команд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Член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катерина Королева представила доклад «Красника в рационе питания коренных этносов Сахалина», который построен на основе мини-исследования этнографических,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и литературных источников.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докладу северяне открыли для себя много нового об известной всем сахалинцам клоповке.

Татьяна Шкалыгин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емейно-родовой общины коренного малочисленного народа нивхи «Койвонгун» из села Чир-Унвд рассказала немало интересных деталей о дикоросах Тымовской долины. А также о связанных с ними традиционных знаниях, которые передаются в ее семье из поколения в поколение.

Еще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прозвучали доклады гостей из Амурской и Кемеровской областей,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 (Якутия), Чукотки, Таймыра, Ненецкого автономного округа, Республики Алтай, Тывы, Красноярского края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Кроме секретов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 рецептов приготовления, докладчики рассказали о различных способах сбора и хранения дикоросов, а также праздниках, которые посвящают им в некоторых регионах.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2019년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2019년 6월 1일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쿨(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대상:** 사할린 및 연해주·극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현지인)
- **공모부문:** 글짓기, 체험수기
- **공모주제:**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 **공모기간:** 2019년 5월 중순까지
- **시상:** 상장과 한국방문권 비롯한 여러상품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자료들을 e-mail: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skr@sakhalin.ru, 또는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새고려신문사로 보내주십시오.

전화: 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eda.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ав(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среда 18-00 Фактически - среда 18-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